

계엄쇼크에 가라앉은 소비심리 회복 힘드네

1월 CCSI 91.2...전월비 3.0P 반등 했지만 여전히 '비관적' 광주시·전남도 다양한 소비 활성화 대책 민생 회복 안간힘

#. 곡성군청 인근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어진(32)씨는 올해 들어 끝없이 뛰는 재료값에 인건비, 재료구입비 등을 내면 남는게 없어 장사를 그만뒀다 할 지 고민이다. 정씨는 "코로나19 당시에 소비심리는 있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손님이 한달 새 대폭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고 한탄했다. 또 끝없는 소비침체와 더불어 고물가 장기화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정씨는 "조금 살아날 것 같았으나 소비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고물가 지속 등으로 다시 추락하고 있다"며 "매출은 3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카페 특성상

사업이나 슈가파우더 등 공산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은 과일, 야채 등의 식자재에만 집중됐다"고 토로했다.

#.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송모(47·여)씨 지난해 겨울 최근 5년 겨울 중 가장 적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겨울에 비해서는 7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패딩 등 겨울 주력 제품 매출이 대폭 줄어든 데다, 손님들도 비교적 비싼 겨울 옷 구매를 꺼렸기 때문이다. 송씨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데, 작년 겨울에는 매년 찾아주시던 단골손님

중 몇몇 분도 발길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 불확실성이 향후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해 폭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상승 전환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CCSI는 91.2로 전월(88.2) 대비 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신정부의 관세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중 6개 지표를 이용해 산출하는 지표로, 최근 20년(2003·2023년)의 장기평균치와 비교해 100

이상이면 소비자의 심리가 낙관적, 100미만이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CCSI는 지난해 6월(100.9) 코로나19 여파 및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전월 대비 12.3p 급락했다. 이달 들어 정치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CCSI는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소비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 소비자들을 맞는 자영업자 등은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고물가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광주시청 전 직원이 인근 식당 이용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광주상생카드 할인율 10% 특별할인 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특별보증, 자금지원, 경영안정자금 등을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23개 사업에 1185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75억원),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77억원), 음식점 소비 촉진(44억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자금(34억원) 등이 있다. 더불어 전남도는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략회의·윤리경영 결의대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류종필)는 22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사·군지부장 및 지점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업추진 전략회의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전남소재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기업여신 확대에 나서면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 등에 앞장설 것 등도 약속했다.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제공>

농업인 경영 안정·청년농업인 혜택 확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제도 대폭 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22일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농업인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 강화, 고품 농업인의 노후 생활보장,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실질적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 경영 안정 강화를 목표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해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점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매 시에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의 경우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농지를 위탁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199.65평)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특히 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선납과 연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원 이상 예치할 시 6개월 이내 두 번으로 나눠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외 고품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일시지급형 농지임대보증금'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상품은 가입 연령에 따라 전체 지급액의 최대 70%를 일시 수령할 수 있는 만큼, 고품 농업인이 필요로 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농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기존 ㎡당 2만67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최대 30년동안 매매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예산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농지임대수탁 및 공공임대 농지 지원 시 농지가 일부만 연결하더라도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진흥환경 인증 농가 기준도 완화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1월 출생아 수 17개 시도 모두 늘었다...전년비 14.6% 증가

증가폭 14년만에 최대치

지난해 11월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생으로 지속 감소세를 거듭하던 출생아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 증가폭은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출생아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493명으로 전년 동월(449명) 대비 44명(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585명에서 731명으로 146명(25.0%) 늘었다.

전국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2만955명으로 전년 동월(1만7530명)에 견줘 2565명(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1월(6146명·17.5%) 이후 14년만에 증가폭도 가장 컸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 2016년 이후 9년만에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역시 전국에서 대구(-3건), 경북(-6건) 외 15개 시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혼인 건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44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늘었고, 전남은 10건(1.9%)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만6694건에서 1만8581건으로 1187건(11.3%) 늘었다.

최근 출생 및 혼인 급증 등에 대해 정부와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혼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한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거주지 지원 등 출산·혼인 장려책이 많아지면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혼인 및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돕기 '선선 결제 캠페인' 참여

전남신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남도 '선선(善善)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남신보 임직원들은 운노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상점에서의 업무추진비 선결제, 비품·물품 조기 구매 등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전남도에서 기획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및 조기 구매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강근 이사장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생과 화합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 상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정치·경제 불안정에 대응하는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자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신보 또한 신규보증을 1000억원 증액한 4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공무원·유공 회원사 36명 포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위더스광주에서 '제 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윤석수 중앙회장 등 협회의 고문, 대표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병철 광주시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및 생산체계 개편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우리 업계가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

다"며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업역 확대, 수주물량 증대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문건설협회 권익신장 및 업역 증진에 기여한 관련 공무원과 협회 발전 유공 회원사 등 36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ICON, GCC 사관학교 2기 입학설명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오는 2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와 2월 13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GCC 사관학교 2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으로, 오는 3월 17일부터 2기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GCC사관학교 2기 개강에 앞서 예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동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입학설명회는 ▲GCC사관학교 소개 및 1기 성과 공유 ▲콘텐츠 분야 명사 특강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안내 ▲현장 Q&A 및 상담으로 구성됐다.

서울 설명회에서는 인기 웹툰 '실질객관동화', '조선왕조실록'의 작가인 '무적핑크'가, 광주 설명

회에서는 인기 웹툰 '닥터프로스트'의 작가 '이종범'과 실감콘텐츠 디자인기업 '디스트릭트홀링스'의 이성호 대표가 명사로 초청돼, '웹툰 창작자의 마음가짐과 실감콘텐츠 프로덕션 및 콘텐츠 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GCC사관학교 2기는 실감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3D아티스트·디자이너, 게임 프로그래머, 웹툰작가 양성 등 948시간의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만18~39세 이하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을 지닌 유학생을 포함한 전국 청년 미취업자 140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GCC사관학교 2기 교육생이 차별화된 실무 중심커리큘럼과 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진공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설명회

다음달 12일까지 45개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오는 23일 '2025년 청년창업가 입교생 모집'을 위한 입교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오는 2월 12일까지 45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이번 청년창업가 입교생 모집을 통해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와 초격차, 신산업 분야 등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향후 1년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보조금과 창업코칭,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유망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일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 사업으로, 광주지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에스오스랩 등 코스닥 상장 기업을 배출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7.06 (+29.03)
↑ 코스닥	732.31 (+6.24)
↓ 금리(국고채 3년)	2.577 (-0.002)
↓ 환율(USD)	1433.00 (-6.50)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